

광주시내버스 환승 편의성 좋아진다

배차 간격 줄고 정류장은 지하철역 가까운 곳으로 버스전용차로제 3개 노선·급행버스 2개 노선 추가 시, 서비스 개선·준공영제 효율화 등 혁신안 발표

광주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줄고 정류장은 지하철역 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 환승 편의성이 제고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방지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전기버스와 저상버스도 전체의 40%까지 교체하는 등 버스 선진화 정책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10일 배차시간 단축을 비롯, 도시철도와의 환승 편의성 강화, 서

비스 개선, 준공영제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교통전문가·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마련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광주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혁신안에 따라 시는 우선 버스정보

설치하고, 무장애 정류장도 2021년까지 60곳을 추가 조성해 105개로 늘린다. 버스전용차로를 현재 8개 노선 47.2km에서 2020년까지 3개 구간을 추가 확대해 총 11개 노선에서 운영한다. 특히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을 위해 출·퇴근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탄력배차제를 강화하고 급행버스는 5분 간격, 간선버스는 20~30분대에서 12분대로 단축된다. 효천·진월지구 등 신도시심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환승 편의성 강화'를 위해 역 출구와의 거리가 50m 이상인 정류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역출구와 근접위치로 조정되며, 금남로4가역 등 이용객이 많은 역에는 역사내에도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성을 도모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익노선 입찰제와 소형버스 도입 등을 통한 재정절감 정책을 추진해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재정지원 최소화 정책도 추진하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 및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기자

시의회, 도시공사사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도시계획·재생 역량은 높으나 보은인사 우려" 평가

광주시의회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노경수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시계획·재생 전문가로서 역량에는 높은 평가를 줬지만, 이용섭 광주시장 측근 '보은인사'에 대한 의혹과 우려를 불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특별위는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노 후보자의 장점으로 풍부한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현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체계



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추진 역량이 뛰어나고 정부·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사 사업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단점으로 공사의 전반적인 경영마져 시에 의해 흔들릴 수 있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도시공사 재정구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 '어촌뉴딜300'으로 어촌·어항 현대화 내년 전국 70곳 40% 유치 목표...사업 대상지 발굴 총력

전라남도가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어촌·어항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정부의 직접 시책인 생활 밀착형 SOC사업의 일환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 걸맞게 300여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등 모든 어항과 배후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방식으로 선정된다. 사업 규모는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다. 1개소당 평균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첫 해인 2019년 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어

촌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한다. 오는 22~23일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12월까지 서류·현장·종합평가를 통해 연말 최종 발표한다. 전라남도는 전남이 전국에서 어항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어촌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2019년 전국 공모 70개소 중 40%(28개소)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촌, 해양, 마을 만들기 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 개최, 농어촌공사, 어촌 어항협회 등 유관기관 및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남은 바다, 섬,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촌과 어항 대부분이 오지에 위치해 접근성과 안전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도로 등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최진화 기자

6세 미만 저소득 가정 카시트 1,400개 보급 전남도, 아동생명안전의식 제고

전라남도는 6세 미만 유아를 둔 저소득 가정과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 1,400개 보급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시트 보급사업은 구입 부담이 큰 가정에 지원해 교통사고로부터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아동 머리 부상 정도가 10배나 늘어난다. 또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카시트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1~2세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총 사업비 2억4,000만 원이 소요된 이번 카시트 보급사업에선 자부담 없이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대상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급된 1,400개 중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1,318개(94%), 저소득층 가정에 82개(6%)를 보급했다. 시·군별로는 여수 169개, 순천 165개, 광양 149개, 목포 148개, 나주 96개 등 도시지역이 높고, 담양 15개, 보성·함평 23개, 구례·신안 24개 등 농어촌 지역 보급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최진화 기자



'남도패스' 개발·운영 업무협약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0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협약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관광 패斯卡드 '남도패스' 개발·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주봉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영업처장, 이태호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영두 코나아이(주) 사장, 송춘민 ㈜유비파트너스 대표이사. /광주시 제공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결과 내달 10일 도출 공론화위, '로드맵' 확정... "시민들 적극적 참여 당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을 결정짓는 대시민 공론화 작업이 10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10일 도출될 전망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론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0~23일 1차 표본(2,500명)조사, 26일 시민참여단(250명) 구성, 11월 9~10일 시민참

여단 종합토론회, 11월 10일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다. 1차 표본조사는 19세 이상 주민등록지가 광주에 있는 시민들로,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유·무선 RDD(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062-268-0581))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방식)로 진행된다. 설문 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질문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과 그 이유, 시민참여단과 1박2일 속의 프로그램 참여여부 등이다. 또 시

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는 11월 9~10일 1박2일간 이뤄지며, 찬·반 양측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쟁점토론회 형태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에게는 건설 찬·반 양측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속의자료집을 우편과 이메일로 보내고, 자료집은 공론화위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지혜와 참여에 달려 있다"며 "지역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광주지하철 청년창업 '메카'로 거듭난다

도시철도공사 농성역에 창업거점 공간 무상 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서구 농성역에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취업지원 거점이 될 '청년 창업메카'를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창업 메카'는 창업준비공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CEO들에게 2년간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농성역 대합실과

썬큰광장을 잇는 연결통로의 약 248.4㎡ 규모의 공간에 사무실(10개) 및 세미나실(1개)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창업가 선정 및 인큐베이팅 방안 마련, 창업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창업 사후관리 등을 전담할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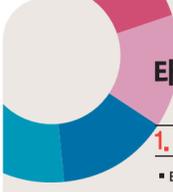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로운 이름,
다스코 [DASCO]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로운 이름,
세라코 [CERACO]

새롭게 출발하는 다스코(주)와 세라코(주)는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R&D를 통해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Total Solution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스코(주)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Tel : 061)370-2114, Fax : 061)370-8195
도로안전, 테크플레이트, 단열재, 외장재, 태양광

세라코(주) 전남 나주시 봉황면 농공단지길 134-7
Tel : 061)331-9000, Fax : 061)331-9003
세라믹벽돌, 친환경, 수처리, 도로안전, 테라코타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사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ijkang@dasco.kr